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 아름다운 눈물

오유리 | 번역가



**원제** 내 생이 다할 때까지  
電池の切れるまで  
**역음** 은방울회  
すずらんの會  
**출판사** 角川書店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는 요즘입니다. 집 앞 풍경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학급 내 친구들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묵직하게 서 있던 건물이 폭삭 내려앉더니 어느새 여러 가구 모여 사는 높다란 빌딩으로 탈바꿈하고, 회사에선 어제까지 신문 한 장 옮겨 못 보고 앉아 있던 부장님 책상이 없어지고, 학교에선 어제 나와 안녕하며 헤어진 친구가 오늘 나를 따돌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를 따돌리는 사람도,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도 '영혼'은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일지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 밑 땅 속에서 움트고 있는 새싹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줄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생이 다할 때까지》(가제)는 일본 나가노현의 현립 어린이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어린이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보육사와 의사가 생명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에 대해 쓴 책입니다. 2002년 11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대단한 작가의 글도 아닌, 이 책은 화려한 광고 카피 한 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일본 전국을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거듭하다 이듬해 후편이 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자층은 어린이부터 학부모, 의사, 교사 등 다양하며 다른 어떤 책보다 서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꾸밈없이 간절한 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의 구성은 첫 장에 소갯글이 실리고, 장기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일기와 시를 엮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다음엔 그 어린 환자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등 가족들이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 나의 꿈

나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달리고 싶다.

내가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리고 싶다.

넓은 운동장에서 넓은 풀밭에서

햇빛을 받으며 마음껏 달려보고 싶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모두 함께 달려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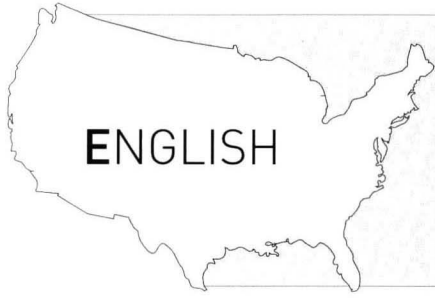
- 히하라 도모히로(日原智大, 초등학교 4학년)

이 시를 쓴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2년 3개월이란 긴 입원생활중에 잠깐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보육원에서 처음 달리기했던 것을 떠올리며 “한 번만 더 실컷 달려보고 싶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달리기라고는 했지만, 친구들이 걷는 것보다도 늦을 정도의 속도로, 쉬엄쉬엄 발걸음을 잇는 정도였는데, 도모히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몸에 와 닿았던 공기, 바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 시를 썼구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모히로는 걷지도, 혼자 설 수도 없답니다. 목에는 관을 꽂아두어서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꿈속에서는 가족들과 핫키아도로 놀러 갈 일, 같은 병에 걸린 친구들과 디즈니랜드에 갈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 히하라 도모히로 군의 어머니 고도미(琴美) 씨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동정이나 슬픔이 아닌, 그 맑은 영혼을 기억하는 순한 마음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독자는 서평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더 열심히 숨쉬고 감사하며 일하자고 생각했답니다. **☞**



# 미국은 원래 청결한 나라?

## 미국 공중보건발달사를 통해 본 청결의 역사

이은정 | 번역가



**원제** 더러움을 없애라 청결을 신앙처럼 여기는 미국인들  
Chasing Dirt: The American Pursuit of Cleanliness

**저자** 수엘렌 호이  
Suellen Hoy

**출판사** 옥스퍼드대학출판부  
Oxford Univ.Press

“미국인들은 몸에 ‘빠다’ 냄새 혹은 노린내가 나서 샤워를 밥 먹듯이 해야 한다”

지금은 이런 말을 끝이끝대로 듣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시샘 반부러움 반으로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유별난 청결습관을 비웃었다. 유난히 씻기 좋아하는 것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을 오래한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미국인들이 선진국 국민이기에 잘 씻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면 처음에는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야?’ 하면서 어리둥절할 지도 모른다. 식민지 초기에 미국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맨발 차림에 땀에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가 그대로 입었고 집 안에는 가축들의 배설물과 해충이 우글거렸다. 18세기, 19세기 초반에 미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은 짐승처럼 생활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불결해서 더 이상 여행하기 어렵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불결해서 비웃음을 당하던 미국이 이제는 지나치게 청결에 집착하는 나머지 외국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변신에 성공한 것일까?

저자는 미국이 식민지 초기부터 건국과 남북 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러 세계 최고의 청결 국가로 변신하기까지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들을 추적한다. 미국인이 위생과 건강의 연관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은 1880년대 중반,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는 병사보다는 질병에 걸려 죽는 병사들이 더 많다는 나이팅게일의 증언 덕분이었다. 그 후 세기가 바뀌면서 미생물의 존재가 알려졌고,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하수도 시설을 완비하였다. 점차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국인들은 자신의 몸과 집, 나아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결에 힘썼고, 그것은 곧 애국과 직결된다고 믿었다. 특히 저명한 흑인 지도자 부커 T. 워싱턴은 이 담기를 권장하는 찬송가를 만들어 유포하고,

“흑인들이 청결하면 백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한편 산업화로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 일하게 되자 가정의 ‘청결’을 홀로 책임지게 된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증가했다. 게다가 청결이 여성다움과 성적 매력의 척도가 되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은 가중되었다. 대량생산체제와 광고의 발달로 각종 세제, 구강청정제, 치약, 방향제 따위가 날개 돋힌 듯 팔렸고, 새로 개발된 생리대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런 현상에는 청결하고 불결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성공한 중산층의 잣대처럼 가르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 했다. 이 잣대는 이민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되었으니,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중산층에 편입하려면 청결이 기본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반문화 운동이 싹트면서 무조건 청결하고 하얀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살충제나 세제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집안청소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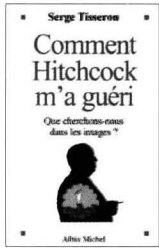
이처럼 저자는 ‘청결’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보통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공중보건발달사를 조망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농촌 주부들에 대한 저자의 연민 어린 시선은 인상적이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청결에 집착하는 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뼈따한 마음이 생기는 건 왜일까? 정치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환경 보호를 부르짖는 미국인들, 청결을 위해 반자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 과연 환경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결한 것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문다. ■

#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방법

히치콕.



한소원 | 신원에이전시



**원제** Comment Hitchcock m'a guéri  
Que cherchons-nous dans les images?  
어떻게 히치콕은 나를 고쳐주었는가?  
우리는 이미지들 속에서 무엇을 찾는가?  
**저자** Serge Tisseron  
**출판사** Albin Michel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Serge Tisseron 은 정신치료의 경우에서처럼 잊어버린 본래의 트라우마(Trauma-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의 병적 상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그를 매혹시키고 황홀케 했던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서 본 이미지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히치콕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의 시선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담들을 통해서 저자는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능들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기의 시선을 예로 들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선이 중요한 것처럼 열쇠가 되는 관념들을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는 동안 자신의 트라우마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미지가 주는 효과는 굳이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내적 동화작용을 통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고자 한 것은 히치콕의 영화가 다른 영화와는 달리 일상의 공포와 여성혐오증 외에도 정신분석과 관계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이미지가 때때로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한, 잊어버린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저자에게 있어서 히치콕 영화의 여자 주인공들이 주는 매력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시선에 사로잡힌 욕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자는 자신이 어린시절에 경험한 사건(그가 네 살 적 물으로 나오지 못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공포로 가득 찬 어머니의 시선을 보았다)을 예로 들면서 우리를 열광케 만들

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미지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동일시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보다 강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 바로 이러한 감정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또 이러한 재생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악이나 책 또는 그림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만일, 우리가 유별나게 이미지들에 의해 포위당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지들이 우리의 옛 기억이나 경험들을 반향하기 때문이며 어머니의 시선에 의해 사로잡힌 유아기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이미지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그 중독성은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비디오게임이 범람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정신적 삶 속에서 이미지의 역할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리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정신적 구조와 정신의 분석 작업 안에서 인간의 행동 과정을 잘 설명한다. 독자는 저자가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 개인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 만의 독특한 이미지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도 동시에 객관성을 잃지 않고 이미지와 관계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그 효과와 반작용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4+**



## 당신 내부에서

#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적은 무엇인가?

서은미 | 에릭양 에이전시



**원제** 즐겁게 일하고  
달콤하게 살기  
LEBEN MACHT DIE  
ARBEIT SUSS  
**저자** Sabine Asgodom  
**출판사** Econ

직장인의 절반이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업 간부 네 사람 중 한 명이 불면증이나 과로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기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Johannes Czwalina에 의하면 이 모두가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방식 -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많이 일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서두르는 - 과 "일중독이라는 것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병"이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고도 심각하다. 체력약화, 심근경색, 인간관계의 단절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식의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대해 점점 더 의심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일과 사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균형balancing'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마치 일종의 '주문' 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시간관리'의 전도사'로 불리는 Lothar Seiwert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life leadership'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Sabine Asgodom의 《즐겁게 일하고 달콤하게 살기》는 '일과 사생활의 조화를 추구하기'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에게 일과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책이다. 오랫동안 자기계발 강사 및 코치로 활동한 바 있는 저자는 일과 인생의 균형을 성취하기 위한 총 일곱 단계로 이루어진 여정에 독자들을 초대한다.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방향 정하기(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내는 과정)', '여행 경비 마련하기(도취, 모험심, 성취능력 등을 끌어모으는

과정)', '교통편 점검하기(기회를 잡는 과정)', '계획 세우기(예정을 구체화하기)', '팀 구성하기(도움을 받을 주변인을 물색하는 과정)', '여행 기간 정하기(각각의 체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 마지막으로 '도착하기와 휴식하기'.

이 책의 기본 컨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껏 꿈 꾸어라. 그러나 그것이 단지 꿈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거나 괜한 망상이나 좇으라고 독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즐거운 직장생활과 일이 끝난 후의 만족스러운 개인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자료와 사례 소개는 독자들에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창의력,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현대인의 직장생활에 나타나는 최근 추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기사, 연습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언까지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다년간의 강사활동을 통해 얻는 그녀의 농밀한 경험담을 통해 독자들은 자기 내부에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일반적으로 어떤 핑계를 둘러대며 조화로운 삶에서 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서은미**